

일연의 《삼국유사》

한국적 스토리텔링의 샘 깊은 물, 《삼국유사》

글 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삼국유사》

일연 지음 | 이가원 · 허경진 옮김 | 한길사 | 616쪽
값 30,000원



《만화 삼국유사》(전3권)

일연 지음 | 유영승 그림 | 녹색지평이 | 각권 190쪽 내외
각권 값 9,500원

“따르릉!” 비좁은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급히 길 한쪽에 차를 세웠다. 아! 선배님이세요? 전데요. 응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뇨, 그냥 어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찰칵!” 갑자기 화가 치민다. 뭐야 이거, 장난 전화도 아니고, 이 자식 잇을 만하면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네. 옆 자리에 앉은 아내가 “정신 병력을 앓았다는 그 후배냐”고 묻는다. 이미 발신자 번호를 보고 받았으면서 뭘 그리 투덜대느냐는 표정이다.

자살한 어느 박사실업자의 유서 한 대목

그랬다. 몇 년 전에 자살한 어느 박사 실업자의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쥐꼬리만한 시간강사 월급보다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비전 없는 나날이었다. 이혼하자는 부인의 말에 절망한 그가 학교 뒷산에 올라 아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결국 누구와도 통화를 못한 그는 짤막한 유서를 남기고 소나무 가지에 목을 땀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그 후배의 용건 없는 얘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기로 작정한 계기는 따로 있었다. 《삼국유사》 끝부분에 실린 손순(孫順)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그것이다. 신라 흥덕왕 때 경주 변두리에 살았던 손순은 날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런데 쥐꼬리보다도 못한 그의 수입으로는 넋이나 되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눈치 없는 어린 아들 녀석은 늙은 어머니의 밥을 번번이 뺏어 먹었다. 꾸짖어도 봤지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배가 고프는 아이에게 그 말이 통할 리 없었다.

손순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실 수 없소. 잡수실 것을 아이가 빼앗아 먹으니 어머니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하시겠소. 애를 땅에 묻읍시다.”

그러고서 그는 아이를 업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한참 땅을 파는 데 그 안에서 종처럼 생긴 돌이 나왔다. 부부는 놀라워하며 잠시 실 검 그 종을 나무에 걸고 한번 쳐보았다. 소리가 은은하기 그지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아이의 복인가 봅니다. 묻어서는 안 되겠어요.” 남편도 그렇게 여겨 종을 아이와 함께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신라시대 손순의 엽기적인 이야기

그야말로 엽기적이랄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가 내 마음을 울렸다. 가난의 끝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입을 하나라도 더는 일, 즉 가족 중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기 가슴을 파는 심정으로 땅을 팠을 것이다. 희망 없는 날들을 한탄하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웃 친지를 원



● 이 글을 쓴 박현모는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정조의 성왕론과 경장정책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세종, 숙종, 영조의 국가경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및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실록학교> 등에서 세종과 정조의 국왕리더십을 강의 중이다. <역사와 사회>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치가 정조>, <세종의 수성(守成)리더십> 등의 저서가 있다.

망하며, 그는 별안간의 가족 소풍에 마냥 즐거워하는 어린 자식의 무덤을 봤을 것이다. 그때 발견된 이상하게 생긴 돌종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에게 돌종의 소리는 그를 죽음의 도둑에서 깨어나게 하는 희망의 소리였다(그 뒷산의 이름이 취산(醉山)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들은 그 종을 대들보에 걸어 놓고 아침저녁으로 쳤다. 희망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더 살아보자는 심정으로. 그러던 어느 날 흥덕왕이 그 신비한 종소리를 들었다. 왕은 “서쪽 교외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맑고 고운 것이 보통 종과 비할 바가 아니다. 빨리 가서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 신하로부터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한 왕은 손순의 가족에게 집 한 채와 매년 벼 50섬을 내려주게 하였다.

이처럼 <삼국유사>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 무엇이 있다. 손순이 살길을 열어달라고, 용기를 갖고 살아볼 만한 최소한의 ‘근거’ 라도 마련해달라고 울먹이며 치는 종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한 흥덕왕의 세심한 ‘귀’와 ‘입’도 그렇거니와, 호랑이까지 감동시킨 낭군(郎君) 김현의 언행은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진 지도자’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 아니다. <삼국유사>는 백제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야기며, 역신(疫神)도 항복시킨 처용의 기이한 춤과 노래, 언니의 오줌 꿈을 사서 김춘추의 왕비가 된 문희 이야기 등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옛날 이야기’를 거의 다 담고 있다. 실로 <삼국유사>는 한국인의 꿈과 정서를 만들어 온 스토리텔링의 깊은 샘물인 것이다.

<삼국유사>에 담긴 희망의 울림들

잘 알려진 ‘단군설화(讖話)’만 해도 그렇다. - 나는 그것을 ‘신화(神話)나 ‘사화(史話)’라기보다는 한국적 스토리텔링의 원형, 즉 ‘설화’라고 본다. - 김부식이 “괴이, 완력, 패란, 귀신에 관한 이야기”라 하여 다루지 않았던 ‘단군의 이야기’를 일연은 책의 맨 앞에 실고 있다. 꿈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는 그렇다 쳐도 - 왜냐하면 박혁거세나 고주몽 같은 <삼국사기>의 주인공도 앞에서 깨어나는 등 뭔가 특별한 데가 있으므로 - 천신(天神)의 아들 환웅이 묘향산에 내려와 천왕(天王)이 되었다는 ‘엄

청난’ 이야기를 김부식이 범연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천자는 하나”라는 유교적 세계관을 부인하는 것일 뿐더러, 주나라 무왕이 기자(箕子)를 보내 세웠다든 ‘기자조선’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그 때문인지 김부식은 의외로 기자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연은 달랐다. 그는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이 중국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나중에 기자에게 도움을 내주고 구월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천연스럽게 말하고 있다. 곰과 호랑이, 신령스런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 그리고 백일 동안의 동굴생활과 금기 등 다분히 ‘한국적인’ 소재들을 사용해 유교의 합리적 사고로는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들려주는 방식도 이채롭다.

이 점에서 나는 <삼국사기>가 경복궁 근정전의 아침을 여는 청명한 편경 소리라면 <삼국유사>는 황혼녘 경주를 물들이는 에밀레종의 유장한 울림에 가깝다고 본다. 똑같은 김유신인데 김부식은 그를 왕과 신민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정치가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연은 백석이란 첩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수룩한 - 그러나 곧 호국신의 도움으로 전생(前生)의 자기 실체를 깨닫는 - 김유신의 모습을 그렸다.

따라서 우리는 눈을 감은 채, 긴 여운을 끝까지 들어보아야 하는 종소리를 대하듯, <삼국유사>의 무수한 비유들을 곱씹어 읽어보아야 한다. 여운의 끝자락, 즉 종소리가 잦아들고 침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문득 울려 퍼지는 마음의 소리처럼, <삼국유사>의 수많은 비유와 비유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의 큰 울림을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